

'동네 변호사' 남구청 법률 홈닥터 인기

도입 5년만에 누적 이용건수 5천 건 돌파 형편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특독'

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로펌 문턱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을 위해 광주 남구가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무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 서비스 이용건수가 최근 5천건을 돌파했다. 법률 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및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형편에 도움을

받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 법률 상담과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법률 서류 작성 및 각종 계약서류 검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와 연계해 법률 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도입한 지 5년만에 누적 실적 5천229건에 달한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에 921건을 시작으로 2015년 1천522건, 2016년 1천72건, 2017년 1천35건, 2018년 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제공 유형별 현황을 보면 법률 상담이 4천95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78%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법률문서 작성 564건, 법률 교육 181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구조신청 179건 등의 순이었다. 법률 상담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 관련 상담이 3천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 445건, 행정소송 121건, 기타 사건 14건이었다. 이밖에 남구는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필요시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거동이 불편한 법률소의 계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 법률 상담과 강의 등을 통해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구청에 오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법률 문제를 쉽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법률 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 같다"며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홈닥터 서비스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실 법무규제팀(☎607-21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광주 북구는 11일 중흥동 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개소를 알리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현장 지원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구 제공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 북구, 전남대·기업·청년단체 등과 가교 역할 수행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북구의 본격적인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11일 광주 북구는 중흥동 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개소를 알리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현장 지원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북구는 전남대와 광주역 주변에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80여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일자리·주민공동체·스마트시티 총 3개팀 5명으로 구성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기업, 청년단체 등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주민 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등 주민주도 사업 유지·관리와 청년창업,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개소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주민,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현장 지원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주민 손으로 직접 마을 가꿔요"

동구, 주민 대상 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사업 실시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마을에서 즐거자! 이웃이 있는 마을살이 행복한 동구마을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사업은 5인 이상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랑과 이웃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다양한 주민모임, 단체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민모임형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문화예술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만들기를 지원한다. 동구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희망자 또는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2019년 공모사업 방향 설명, 마을배움학교 안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마을별 특색을 살리는 마을의제 발굴과 지속가능한 마을 운영방안 모색, 단절된 아파트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공동체 지원 등 동구의 마을별 여건과 특색을 살려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2019년을 민선7기 마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마을활동가를 적극 양성하는 등 마을만들기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마을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활력 넘치는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서구, 국비 10억원 확보

국토부 주관 호남 유일 선정

광주 서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서구 우수사례는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으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뽑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4개 시·도 및 60개 시·군·구에서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명의 민간전문가와 심사위원이 1차 PPT 심사에 이어 2차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은 기존의 향토문화마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 서창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10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의 및 문화사업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금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광산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참여자 모집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초등학생과 기초의원이 함께하는 '어린이 모의의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산구의회는 광산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2019년 겨울방학 어린이모의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광산구의회 여름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행복동지 낚은 집 수리 지원해드려요"

북구, LH와 손잡고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주거급여대상자 수리 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생활이 어려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광주 북구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인철)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수급자 141세대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등) 378만원, 중보수(창호·난방공사 등) 702만원 대보수(지붕·옥실개량 등) 1천26만원이며 장애인과 고령자는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북구는 지자체 주거약자 지원사업의 일환인 '행복동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올해는 도배, 장판, 창호, 옥실 개량 등 일반적인 집수리뿐만 아니라 초인종과 주거관련 물품 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테트/석면철거 전문기업입니다.
민중과 상생협력을 기업이념으로 친환경 활동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 스테트 석면 철거 전문
-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 집수리 및 미니프레이밍(압쇄기 보유)
- ▲ 인력 상당환경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http://unisolar21.com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기중치 1.5 적용
- ▶ 니주 다시 송출: 100KW 30좌좌 분양 사업주 모집
- ▶ 해남 송산: 400KW 개발행위 완료
- ▶ 고흥 도화역중: 1MG 2구좌
- ▶ 고흥 계동: 1MG 1구좌 / 500KW 1구좌

개발행위 완료, 선로 연내 개통

H. 010-9340-5519
☎ 062)672-5519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http://shan.lguplusappstore.co.kr

새한익스프레스

보통보험가입업체 관허 25호

포장이사·일반이사·보관이사

-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방문 견적 상담해 드립니다.
- 에어컨, 비데, 정수기 등 무료 분리 서비스
- 커튼, 맥자, 버티컬, 블라인드 등 무료 할부착
- 각종 가구 먼지 제거 등 확실한 마무리 정리정돈

대표전화 269-2222
무료전화 080-269-5000

동구 261-8600 서구 364-8600 남구 653-5524
북구 511-8600 현산 941-8524 문인 269-5544

경희한의의원

불면증 · 우울증
환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070620-증-397호

공감하면 상품특독

카카오톡으로 [사랑방]친구들과 친구를 맺고 사진, 상품을 올려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매주 3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랑방 특독
사랑방 사진관
사랑방 행사
매주 3명

Home plus
20,000